



이 비 그치면 호랑이 더 단단해질까

봄비가 내린 10일 KIA 타이거즈 선수들이 대형 방수포가 깔린 챔피언스필드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세밀함으로 승리에 부족했던 2%를 채운다. KIA 타이거즈는 개막 후 29경기에서 12승17패를 기록하면서 9위에 머물러 있다. 지난 주말 넥센과의 원정 3연전에서 싸늘이 패를 당하면서 승률은 0.414로 떨어졌다. 패배는 늘 아쉽지만 유독 올 시즌에는 미련이 남는 패가 많다. 쉽게 지지는 않지만 지는 날이 더 많은 '호랑이 군단'의 2016 시즌 반전을 위해 세밀함이 필요하다. 김기태 감독은 kt와의 홈경기가 예정됐던 10일 '넥센이 잘했고 우리가 부족한 것들이 있었다. 잘못된 것에 대한 것은 모두 감독 책임이다'고 지난 3연패를 돌아봤다. 또 "시합이라는 것은 베이스 커버, 주루플레이 등 베이스 하나에 흐름이 바뀔

KIA, 2% 부족한 플레이로 아쉽게 농친 경기 많아 반전 위해 세밀한 야구 필요...오늘 kt전 지크 선발

수도 있는 것이다. 상황에 맞게 잘해야 하는 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당당 파트에 그런 부분을 주문했다. 물론 이전에도 실수가 나왔고, 앞으로도 실수를 하긴 할 것이다. 실수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KIA는 주말 3연전을 치르면서 돔구장이라는 특수 상황 속에 공수주에서 크고 작은 실수를 저질렀다. 그리고 그런 실수에서 팽팽하던 경기의 흐름이 기운 모습이었다. 올 시즌을 앞두고 KIA는 많은 이들이 꼽는 최하위 후보였다. 윤석민과 새 외국인 투수의 가세로 선발진에 힘이 불

었지만 불안한 불펜과 부족한 화력 탓에 KIA는 최하위 후보로 분류됐다. 그리고 예상대로 KIA는 9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하지만 예상보다는 불펜과 공격의 힘이 모두 괜찮다. 불펜의 부상 공백에서 좋은 활약을 해 주고 있는 홍건희는 "(김)광수 선배가 왜 우리 불펜을 약하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우리도 할 수 있다. 괜찮다는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걱정했던 것보다는 다들 잘해주고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공격지표도 9위라는 성적과 어울리지 않게 준수하다. /글·사진=김여울기자 wool@

김 감독이 언급한 대로 KIA는 늦은 베이스 커버와 거친 주루 플레이로 승리에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부족한 전력, 운명에서도 세밀함이 떨어지기도 했다. 3연전의 실패를 돌아본 김 감독은 전력 극대화를 위해 10일 유격수 자리에 강한울을 예고했다. 김 감독은 "비가 계속 와서 그라운드 상태가 미끄럽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 강한울이 유격수로 선발 출전을 할 예정이다"고 언급했다. 시즌은 길다. 부족했던 마지막 퍼즐인 세밀함을 채우면 반전의 5월도 가능하다. 한편 10일 경기는 봄비에 우천취소됐다. KIA와 kt는 변동 없이 지크와 밴와트를 11일 경기 선발로 예고했다. /글·사진=김여울기자 wool@

덕아웃 T 특특

▲열심히 하면 됩니다 = 칭찬이 아색한 김호령이다. 김호령은 지난 8일 넥센과의 경기에서 상대 선수들의 발길을 돌리는 호수비를 선보였다. 넥센 임병욱의 솔로홈런으로 6-6으로 승부가 원점으로 돌아간 9회말, 서건창의 2루타가 나오면서 넥센에 끝내기 찬스가 찾아왔다. 고의사구로 무사 1·2루. 유재신의 타구가 중견수 방향으로 쭉쭉 뻗어 나갔고 넥센 벤치에 있던 선수들이 그라운드로 달려오기 위해 준비를 하던 순간, 김호령이 공을 낚아채면서 완이 웃이 됐다. 이후 박정음의 끝내기 안타가 나오기는 했지만 넥센 선수들의 발

칭찬 아색한 김호령 "열심히 하면 됩니다"

칭찬 익숙한 이대형 "예전부터 잘 나갔죠"

길을 돌리는 김호령의 호수비였다. 하지만 칭찬을 받은 김호령은 "전진수비를 하고 있어서 그렇지 잡을 수 있는 타구 아니었나"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공을 잘 잡는 비결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면 된다"며 웃었다. ▲예전부터 잘 나갔죠 = 칭찬이 익숙한 이대형이다. 이대형은 최근 11경기에서 연속 안타를 때리는 등 최근 23경기에서 무안타 경기가 단 한 차례 그칠 정도로 좋은 활약을 하고 있다. kt의 리더 오프로 만점 활약을 하고 있는 이대형.

"요즘 잘 나간다"는 이야기에 "아니다"며 손을 저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이 아니었다. 이대형은 "요즘이요. 원래 잘 나갔죠"라고 대답을 해 사람들을 웃겼다. ▲희석했더니 힘이 나오네요 = 수비 훈련 시간에 필필 날던 윤완주. 가벼운 몸놀림을 본 김태용 수비 코치가 "좋은 일 있느냐?"며 윤완주를 칭찬을 했다. 이에 윤완주는 "희석을 했더니 힘이 난다. 단백질 섭취를 했더니 힘이 나는 것 같다"고 활짝 웃었다. KIA는 9일 소고기

희석을 하면서 분위기 전환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신상입니다 = 챔피언스필드에 신상 방수포가 등장했다. kt와의 홈경기가 예정됐던 10일 봄비가 계속되면서 그라운드 타포린 소재의 대형 방수포가 등장했다. 52m 정사각형 크기의 방수포는 내야는 물론 외야 일부까지 덮었다. 700만원을 들여 제작한 방수포는 자외선 차단 코팅도 되어있다. 방수포를 접고 펴는 데는 15~20명의 인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올 시즌을 앞두고 KBO에서 우천취소 경기 최소화를 위해 방수포 설치를 요청하면서 새로 장만한 신상 방수포. 하지만 이날 비가 계속되면서 방수포는 끝내 걸리지 못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코리안 메이저리거 소식

'초구 머신' 강정호 2루타

강정호(29·피츠버그 파이리츠)는 모두가 인정하는 피츠버그 주전 3루수다. 미국 스포츠전문 매체 ESPN은 "메이저리거 전체 톱10 유격수가 3루수로 뛰고 있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팀 내 입지를 굳힌 강정호는 자신감 넘치는 타격을 한다. 초구 공력과 장타력은 자신감에서 나온다. 강정호는 10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에서 열린 신시내티 레즈와 메이저리거 방문 경기에 6번타자 3루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1안타 1타점을 기록했다. 이날 강정호는 2회 첫 타석에서만 공 3개를 지켜보며 루킹 삼진을 당했을 뿐, 다른 3차례 타석에서는 모두 초구를 공략했다. 4회에는 포수 파울 플라이로 물러났지만, 6회 초구를 공략해 유격수 땅볼로 타점을 올렸고 9회에는 우중간을 가르는 2루타를 쳤다. 무릎 부상을 달고 빅리그에 복귀한 7월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전에서도 강정호는 6회초 2사 2루에서 초구를 받아쳐 우월투런 이치를 그렸다. 이번 시즌 강정호는 초구를 공략해 6타수 2안타를 기록했다. 이날까지 강정호의 성적은 12타수 3안타 2홈런 5타점이다. 강정호는 타수의 50%를 초구 공략으로 채웠다. 그만큼 적극적으로, 자신 있게 스윙했다. 출전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는 타자는 타석에서 위축된다. 초구 공략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주전 3루수



강정호에게 초구가 좋은 먹잇감이다. 지난해 메이저리거에 입성하자마자 주전으로 자리잡은 강정호는 51타석에서 초구 공략을 했다. 초구 타격 성적은 49타수 20안타(타율 0.408)였다. 20안타 중 4개가 홈런이었다. 올해는 더 과감하게 초구 공략을 한다. 자신감 넘치는 스윙은 장타를 만든다. 강정호가 올 시즌 친 안타 3개가 모두 장타(홈런 2개, 장타 1개)다. 강정호는 올 시즌 첫 경기에서 2회 첫 타석, 초구를 공략하다 3루수 앞 병살타로 물러났고 4회 무사 만루에서도 초구를 쳐 2루수 뜬공에 그쳤다. 하지만 세 번째 타석에서도 고집스럽게 초구 공략을 택했고 홈런포를 쏘아 올렸다. 10일 신시내티전에서도 4회와 6회 초구 공략으로 범타로 물러났지만, 주눅이 들지 않고 9회 초구를 받아쳐 2루타를 만들었다. 강정호의 자신감은 더 커졌고, 그를 향한 피츠버그의 신뢰도 깊어졌다. /연합뉴스

'출루 머신' 이대호 2안타

이대호(34·시애틀 매리너스)가 메이저리거 세 번째 멀티히트를 기록했다. 이대호는 10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세이프코 필드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거 템파베이 레이스와 홈 경기에 8번타자 1루수로 선발 출전해 3타수 2안타 1볼넷으로 경기를 마쳤다. 이대호는 2회말 1사 1루에서 좌완 선발 맷 무어와 대결해 볼넷을 골라 출루, 후속타자 타석 때 무어의 폭투로 2루로 진투했지만 홈으로 돌아오지는 못했다. 1-1로 맞선 4회말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는 무어의 2구째 시속 151km 투심 패스트볼을 밀어쳐 우전 안타로 연결했다. 이대호는 2사 후 아오키 노리치카의 2루수 땅볼로 2루에서 아웃됐다. 세 번째 타석에서는 아쉬움을 남겼다. 2-2로 맞선 5회말 2사 만루가 되자 템파베이는 무어를 마운드에서 내리고 2013 시즌 한화 이글스에서 뛴 좌완 다니 이브랜드를 올렸다. /연합뉴스



하지만 이대호는 만루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이브랜드의 4구째 시속 134km 슬라이더를 공략했지만, 살짝 빗맞은 타구는 2루수 글러브에 바로 빨려 들어갔다. 이대호는 5-2로 앞선 7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우완 스티브 겔츠의 초구 시속 150km 포심 패스트볼을 잡아당겨 좌전 안타로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메이저리거 개인 통산 세 번째 멀티히트다. 이대호의 타율은 0.256에서 0.286(42타수 12안타)로 올랐다. /연합뉴스

'사구 전문' 박병호 "괜찮다"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프로야구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경기에서 오른쪽 무릎에 공을 맞아 경기 중 교체된 박병호(30·미네소타 트윈스)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9일 미국 미네소타 주 미니애폴리스의 타깃 필드에서 볼티모어 오리올스와의 홈 경기를 앞두고 만난 박병호는 "그날만 아팠을 뿐 다음날부터는 괜찮았다"고 근황을 전했다. 박병호는 당시 화이트삭스의 왼손 투수 크리스 세일의 몸쪽 슬라이더를 공략하려 나가다가 오른쪽 무릎뼈를 그대로 맞았다. 타박상으로 교체된 큰 부상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그는 다음날 경기에 정상 출전했다. 이날 팀 트레이너에게서 물리치료를 받고 부상 부위를 점검한 박병호는 무릎에 멍도 다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박병호는 "빈볼이 나올 상황도 아니었다"면서 다시 출루를 타내고 새 경기를 준비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박병호는 지난해까지 한국프로야구 KBO리그에서 통산 59차례 몸에 볼을 맞



았다. 넥센의 중심 타자가 된 2012년 이래 4년간 연평균 11차례 얻어맞았다. 그는 이날 6번 지명 타자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다. 8승 23패로 아메리칸리그 15개 팀 중 꼴찌로 처진 미네소타의 폴 몰리터 감독은 이날 팀의 구심점인 조 마우어를 토타자로 기용하는 새로운 승부수를 던졌다. 2번과 3번을 주로 친 마우어가 1번 타자로 출전 한 것은 이번이 통산 두 번째다. 마우어의 출루율이 0.420으로 팀에서 가장 낮기에 공격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짠 고위책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이수민·왕정훈 '무주공산' 유럽골프 2승 도전

내일 모리셔스오픈 개막 이수민(23·CJ오쇼핑)과 왕정훈(21)이 유럽프로골프 투어 시즌 2승째를 노린다. 한국 남자골프의 '차세대 에이스'로 주목받는 이들이 출전하는 대회는 12일 아프리카 남동쪽 인도양에 있는 섬나라 모리셔스에서 개막하는 유럽프로골프 투어 모리셔스오픈(총상금 100만 유로)이다. 이수민은 지난달 선전 인터내셔널(총상금 280만 달러)에서 우승했고, 왕정훈은 9일 막을 내린 하산 2세 트로피(총상금 150만 유로)에서 정상에 올랐다. 이번 대회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제5의 메이저 대회'로 불리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과 기간이 겹쳤다. 그 바

PGA 경기와 겹쳐 정상급 대거 불참

올림픽 출전권 확보 위한 절호의 기회

람에 유럽 투어의 정상급 선수들이 대부분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으로 향하면서 이수민과 왕정훈은 시즌 2승 가능성을 더욱 부풀리게 됐다. 특히 유럽투어는 최근 3개 대회에서 연달아 아시아권 선수들이 정상에 올랐다. 4월24일 끝난 선전 인터내셔널 이수민을 시작으로 1일 막을 내린 볼보 차이나 오픈에서는 리하오통(중국)이 우승했다. 또 9일에는 왕정훈이 모로코 대회를 제패하는 등 아시아 선수들의 강세가 두드러

졌다. 모리셔스오픈까지 아시아 국가 선수가 우승하면 최근 4개 대회 연속 유럽프로골프 투어에서 '아시아 챔피언'이 탄생한다. 무엇보다 이수민과 왕정훈은 8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나가려면 앞으로 승수를 보탬 필요가 있다. 현재 세계 랭킹에서 이수민이 68위, 왕정훈은 88위다. 한국 선수 중에서는 24위의 안병훈(25·CJ), 43위인 김경태(30·신한금융&



를)에 이어 3.4위다. 한국 선수 가운데 상위 2명이 올림픽에 나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수민, 왕정훈이 올림픽 태극마크의 꿈을 이루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렇기 때문에 투어 톱 랭커들이 많이 빠진 이번 대회는 두 선수에게 그 어느 때보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번 대회에는 이수민, 왕정훈 외에 에두아르도 몰리나리(이탈리아), 지브 밀카심(인도) 등이 출전한다. /연합뉴스